

## 2024년 성녀 카타리나 축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2025년 성년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살아내고 특별한 은총의 선물로 이 성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 안에서 교황님의 호소가 되울리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간직하고, 우리 각자가 열린 생각과 신뢰하는 마음과 넓은 전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힘과 확신을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성년은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새로운 재생의 표지인 희망과 신뢰의 분위기를 되찾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2025년 성년을 위하여 리노 피스켈라 몬시뇰에게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편지).

성년을 지낸다는 것은 쇄신, 새로 태어남, 다시 시작함을 뜻하고 한 시대를 구분짓는 변화를 실현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곧 축일을 지내게 될 우리 자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모범과 노력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녀 카타리나는 흑사병과 그 결과로 인하여, 그리고 특히 성직자의 부패로 인하여 고통을 겪던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녀는 용기를 가지고 강렬하고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개혁과 쇄신이라는 개념은 교회에 대한 성녀의 선망에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성녀의 성덕이 널리 전파되었을 때 성녀는 귀족, 정치인, 예술가, 평민, 축성된 이들, 성직자들, 그레고리오 11세 교황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고를 해 주는 강렬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고리오 11세는 아비뇽에 머물고 있었는데, 카타리나는 교황에게 로마로 돌아오도록 힘있게 권고하여 이를 이루었습니다. 성녀는 교회를 내적으로 개혁하고 나라들 사이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2010년 11월 24일, 일반 알현). 성녀 카타리나는 교회를 위하여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교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쇄신되어야 한다고, 각 시대의 끔찍한 악들로부터 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깊이 확신했습니다. 교회의 신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 지체들이, 성 바오로가 에페소서(4장)에서 말했던 새 인간을 입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년이라는 큰 사건을 준비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이 해에, 그 성덕에서 나오는 지혜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성녀의 도움을 청합시다. “이 영혼은 자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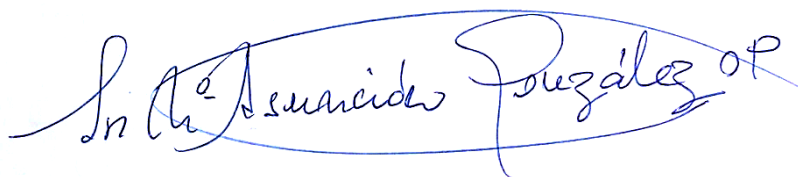
하느님에 대한 인식 안에서 발견한 하느님 사랑의 불 속에서 정화되어,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성 교회의 개혁에 대한 희망으로 고무되어, 영원하신 아버지를 향하여 성 교회의 나병과 세상의 비참함을 보여드리며 모세처럼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 자비의 눈길을 백성에게, 그리고 성 교회의 신비체에게 돌려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무수히 거슬렀고 수많은 악들의 원인인 저 한 사람만을 용서하시는 것보다 수많은 피조물들을 용서하시고 인식의 빛을 주심으로써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사랑이시여,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대화집, 13).

자매 여러분, 교황님께서 바라시는 이 기도의 “교향악”에 동참합니다. 우리 자매 성녀 카타리나처럼 기도의 임무에 더 강렬하게 투신하고, 성녀가 하느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머물고 자신을 인식하며 언제나 그시대 사회의 필요를 기억했던 “내면의 방”을 만듭시다. 주님은 성녀 카타리나에게,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말도록 거듭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도움을 청하는 갈망에서 약해지지 않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낮추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세상에 자비를 베푼다. 내 진리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와 함께 기뻐하고, 내 이름의 영광과 찬미를 위하여 영혼들을 빵으로 먹어라. 인류라는 아들의 죽은 몸 위에서 간절하게 탄식하여라. 나는 인류가 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비참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이 탄식과 부르짖음 때문에 나는 세상에 자비를 베푼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 종들에게 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갈망을 무시하지 않겠다”(대화, 107).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흠송하고 그분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청하고자 하는 갈망을 다시 일깨웁시다. 우리의 투신의 매 순간이 기도의 몸짓이 되게 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한계를 교회와 우리 형제들의 선익을 위하여 은혜를 얻는 기도의 봉헌이 되게 합시다.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성녀 카타리나가 하늘에서 우리를 감화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



총장 M<sup>a</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